

존경하는 동역자님께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면 고국의 명절이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번 추석은 특별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저희 UAUT 출신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초청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탄자니아에서 함께 사역한 아우 이진동 선교사와 문화계 인재인 이정희 권사의 안내로 공주 백제문화제에 참석하여 왕과 왕비복을 입고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지도자로 쓰임 받을 것을 생각하니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탄자니아 연합대학 출신 한국 유학생은 20 명 가까이 되지만 이번에는 순천향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 대학에서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제자들이 둘이나 되었고, 그중에 두 자녀를 둔 다니엘은 이번에 온가족이 참여하여 감사했습니다. 기회가 닿는대로 서울대를 비롯하여 부산 동서대, 포항공대, 충북대에 있는 유학생들에게도 비전을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순천향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포렌식의 전문가가 된 가브리엘 형제(위 좌)가 탄자니아 대표로 지난 8 월 한국정부의 초청을 받고 들어와 두 주간 연수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을 UAUT 를 통해 열매들을 맺어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UAUT 역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한국기독교 TV CTS 가 주도하여 대학 시설들을 발전시켜 주니 이 또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 월 15 일, 오픈 예배와 행사를 겸하게 드릴 하늘홀 헌당 감사예배가 드려지고, 지금은 탄자니아 대학중 최고의 카페테리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강항남 전도사님의 후원으로 Dr. Daniel Seni 의 아프리카 상황에서 개혁주의신학이 출간되고,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에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들을 제공할 수 있게 하신 후원자들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것은 탄자니아에 이어 필리핀 두마게티 시에 예수촌을 동역자들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탄자니아 예수촌이 미전도 족속인 자라모 무슬림 마을에 세워져 무슬림들의 눈을 열어 삶의 변혁을 가져온 것처럼 집없이 살아온 필리핀 극빈 가정에게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던 마상롱 선교사를 도와 필리핀 예수마을 설립을 위해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1 월 4 일 새벽 이디오피아 항공으로 탄자니아에 들어가 UAUT 와 CALVIN 신학교를 비롯하여 제자들의 사역을 돕고 12 월 말에 귀국한 후 1 월말에 동역자들과 필리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예수마을이 신앙공동체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환경과 시설 특히 1 채에 한화 150 만원이 소요되는 주택 상태 및 교회와 갖추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1 탄자니아 예수촌에 세워진 진료소 2 마상롱 선교사가 제공한 주택 3 필리핀 사역 동역자들

기도 제목

- 1, UAUT 와 탄자니아 칼빈신학교가 역량있는 국가 지도자를 배출할 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2. 성령이 함께하는 선교사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4. 10 여명에 이르는 장학생들과 제자들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2025. 10.20

작은 자 이 진섭 드림